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8월 3주 차

2026. 8. 20.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각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8월 3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거침없는 흥행 독주! 지금 가장 뜨거운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거침없이 흥행 질주 중인 쿠팡플레이 시리즈 신작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이웃집을 덮칠 더 거센 파국을 확인해 보세요!

사면초가에 몰린 김혜수 X 조여정, 비밀을 노리는 ‘침입자’의 등장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로 올라온 작품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가 3주 연속 인기작 1위를 지키며 독보적인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4일(금) 공개된 5화에서는 ‘경희(김혜수)’가 약점을 잡고 판을 뒤집은 것도 잠시, 남편 ‘재홍(김지훈)’의 진짜 불륜과 두 집안 아들이 얹힌 뺑소니 사고의 전말까지 드러나며 또 한 번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오는 8월 21일(금) 공개되는 6화에서는 연이어 터진 진실 앞에 주저앉았던 ‘경희’가 서늘한 눈빛으로 다시 일어서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한편, 우아한 외피를 벗어던진 ‘수정(조여정)’은 위험천만한 선택을 예고하고, 의도적으로 ‘재홍’에게 접근했던 변호사 ‘최상철(이두석)’은 불륜과 뺑소니, 시체 은폐의 비밀이 쌓인 ‘경희’의 집에 몰래 침입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묘하게 얹히기 시작한 ‘경희’와 ‘보성(김재철)’의 관

계, 어른들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민서(도영서)’와 ‘예지(전시현)’까지 더해지며 두 가족을 집어삼킬 파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연쇄 추돌 블랙 코미디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하다.





제목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르 블랙 코미디

감독 이창희

극본 정은경, 박수린

출연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

공개 7월 3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독보적 존재감의 김혜수 필모그래피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수의 대표작을 모았습니다. 밀수판을 휘어잡는 ‘조춘자’부터 슈퍼 계약직 ‘미스 김’, 금고털이 ‘뽕시’까지 쿠파에서 만나보세요.

물질하던 해녀들이 밀수판에 뛰어든다! 김혜수의 배짱 넘치는 ‘조춘자’



1970년대 바닷마을 군천을 무대로 한 <밀수>는 생계를 잃은 해녀들이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건져 올리며 거대한 범죄판에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 화학 공장의 오염수로 물질이 어려워지자, 승부사 ‘조춘자(김혜수)’는 해녀들의 리더 ‘엄진숙(염정아)’에게 밀수를 제안하고, 해녀들은 새로운 돈길을 열어간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린 작업이 세관의 급습으로 뒤집히면서 ‘춘자’는 종적을 감추고, 배신자로 오해받은 채 ‘진숙’과의 관계에도 깊은 균열이 생긴다. 몇 년 뒤 전국구 밀수왕 ‘권 상사(조인성)’와 함께 군천으로 돌아온 ‘춘자’를 중심으로 ‘진숙’과 밀수판의 실세 ‘장도리(박정민)’, 세관 계장 ‘이장춘(김종수)’까지 서로 다른 욕망을 품은 인물들이 다시 얹힌다. 김혜수는 화려한 스타일링, 시시각각 달라지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춘자’의 배짱과 생존력을 표현하며, 묵직한 카리스마의 염정아와 끈끈한 워맨스를 완성했다.



제목 밀수

장르 범죄

감독 류승완

출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밀수'](#)

“퇴근시간입니다만”, 상사도 찢찢매는 계약직 ‘미스 김’의 직장 생존기



김혜수에게 2013년 KBS 연기대상 대상을 안긴 <직장의 신>은 부장도 찢찢매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 김과 그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일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생존 코미디다. 수많은 자격증과 압도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미스 김(김혜수)’은 정해진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를 철저히 지키며 수당 없는 야근과 불필요한 회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회사와 조직에 기대어 살아가는 정규직 팀장 ‘장규직(오지호)’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가운데, 신입 계약직 ‘정주리(정유미)’를 비롯한 동료들의 현실적인 애환과 직장 내 차별이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펼쳐진다. 김혜수는 무표정한 얼굴과 거침없는 말투, 몸을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완성하는 동시에 냉정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상처와 따뜻함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직장인의 공감을 자극하는 현실적인 에피소드와 통쾌한 풍자가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오피스 드라마 <직장의 신>을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즐겨보자.



제목 직장의 신

장르 드라마

감독 전창근, 노상훈

출연 김혜수, 오지호, 정유미, 이희준, 전해빈, 조권

['직장의 신'](#)

“너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아니?” 김혜수 X 전지현, 한마디도 지지 않는 티키타카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도둑들>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해 모인 한국과 중국의 전문 도둑 10인이 벌이는 범죄 액션 영화다. 비밀스러운 설계자 ‘마카오 박(김윤석)’의 제안으로 ‘뽀빠이(이정재)’, 줄타기 전문 ‘예니콜(전지현)’ 등 각 분야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지만, 저마다 다른 욕망과 속셈을 품은 도둑들은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서로의 뒤통수를 노린다. 김혜수는 ‘마카오 박’과의 과거를 간직한 금고털이 ‘펍시’ 역을 맡아 농익은 카리스마와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잡는다. 특히 ‘예니콜’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는 날카로운 티키타카로 유쾌한 재미를 더한다. 김혜수의 묵직한 존재감과 전지현의 발랄하고 능청스러운 에너지를 비롯해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앙상블,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와 화려한 와이어 액션이 어우러져 최동훈 감독표 케이퍼 영화를 완성했다.



제목 도둑들

장르 범죄

감독 최동훈

출연 김윤석, 김혜수, 전지현, 이정재

공개 2012

['도둑들'](#)

<오디세이> 보기 전 꼭 예습해야 할 고대 그리스 대서사시

<오디세이>의 세계를 더 깊이 즐기기 위한 대서사시를 정리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모험부터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트로이 전쟁까지 쿠팡플레이에서 예습해 보세요!

영원한 명예인가, 예정된 죽음인가!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피할 수 없는 결투



<오디세이> 흥행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트로이>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올랜도 블룸)'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다이앤 크루거)'의 사랑으로 촉발된 거대한 전쟁을 그린 대서사극이다. 평화 협정을 위해 스파르타를 찾은 '파리스'가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 함께 트로이로 도망치자, 분노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브렌단 글리슨)'는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브라이언 콕스)'에게 복수를 요청한다. 트로이 정복을 노려온 '아가멤논'은 이를 명분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결집하고, 전쟁에 나서면 영원한 명예를 얻는 대신 목숨을 잃는다는 예언을 받은 영웅 '아킬레스(브래드 피트)'도 전장에 뛰어든다. 명예와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던 '아킬레스'는 사촌이자 전우인 '파트로클로스(가렛 헤드룬드)'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릭 바나)'에게 목숨을 잃자 건잡을 수 없는 복수 심에 사로잡혀 피할 수 없는 결투를 벌인다.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가 완성한 두 영웅의 강렬한 대결과 거대한 성벽을 둘러싼 대규모 전투가 어우러져 불멸의 트로이 전쟁을 장대한 스케일로 펼쳐낸다.

제목 트로이

장르 액션

감독 볼프강 페터젠

출연 브라이언 콕스, 다이앤 크루거, 올랜도 블룸, 에릭 바나, 브렌단 글리슨, 세프론 버로우스, 브래드 피트

공개 2004

[‘트로이’](#)

메두사부터 크라켄까지! 반신반인 영웅 페르세우스의 신화적 모험



신들의 지배에 반기를 든 인간들로 인해 세상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평범한 어부로 살아온 반신반인 영웅 ‘페르세우스(샘 워싱턴)’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그린 판타지 액션 영화 <타이탄>. 신들의 왕 ‘제우스(리암 니슨)’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자란 ‘페르세우스’는 저승의 신 ‘하데스(랄프 파인즈)’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다. 인간들의 공포를 이용해 힘을 키우려는 ‘하데스’가 아르고스의 공주 ‘안드로메다(알렉사 다발로스)’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바다 괴물 크라켄을 풀어놓겠다고 선포하자, ‘페르세우스’는 왕국을 구할 힘을 얻기 위해 전사들과 함께 금지된 땅으로 향한다. 여정이 깊어질수록 거대 전갈과 눈을 마주친 자를 돌로 만드는 메두사 등 전설 속 괴물들이 차례로 앞을 가로막고, ‘페르세우스’는 신의 아들과 인간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는다. 지상과 저승, 올림포스를 넘나드는 거대한 세계와 천마 페가수스, 메두사, 크라켄이 펼치는 압도적인 볼거리가 고대 그리스 영웅 신화를 화려하게 되살린다.

제목 타이탄
장르 판타지
감독 루이스 리터리어
출연 리암 니슨, 샘 워싱턴
공개 2010

[‘타이탄’](#)

무더위 날릴 공포의 귀환! <인시디어스> 시리즈 다시 보기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15년 넘게 글로벌 호러 팬들을 사로잡아온 <인시디어스>.
신작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 보기 전, 시리즈의 핵심 서사를 정주행해 보세요!

10년 만에 열린 ‘빨간 문’ 다시 시작된 램버트 가족의 악몽



전 세계 박스오피스 약 1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리즈 최고 흥행작에 오른 <인시디어스: 빨간 문>은 <인시디어스: 두번째 집>의 사건으로부터 10년 뒤,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을 지운 채 살아가던 램버트 가족에게 다시 찾아온 악몽을 그린다. 아내와 이혼한 '조쉬(패트릭 윌슨)'는 어느새 대학생이 된 아들 '달튼(타이 심킨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과 알 수 없는 기억의 공백은 두 사람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미대에 입학한 '달튼'이 수업 중 무의식적으로 섬뜩한 빨간 문을 그려내면서 봉인됐던 기억과 유체 이탈 능력이 되살아나고, '조쉬' 역시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자신을 뒤쫓는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억눌러온 과거가 현실을 잠식하자 두 사람은 다시 열린 빨간 문을 닫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인 '더 먼 곳'으로 향한다. '조쉬' 역의 패트릭 윌슨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전편의 점프 스के어와 기괴한 공포를 이어가는 동시에 오해로 멀어진 부자가 상처를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램버트 가족의 서사를 마무리한다. 신작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를 보기 전, 다시 열린 빨간 문 너머의 공포를 먼저 확인해 보자.

제목 인시디어스: 빨간 문

장르 공포

감독 패트릭 윌슨

출연 패트릭 윌슨, 타이 심킨스, 싱클레어 다니엘

공개 2023

['인시디어스: 빨간 문'](#)

모든 공포는 이 집에서 시작됐다! 영매 '엘리스'가 마주한 어린 시절의 악몽



매번 다른 사람의 집에 깃든 악령을 쫓아온 영매 ‘엘리스(린 샤예)’가 이번에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공포와 마주한다. 한 남자로부터 집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의뢰를 받은 ‘엘리스’는 문제의 장소가 어린 시절 살았던 뉴멕시코의 고향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5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에는 아버지의 학대와 상실로 얼룩진 기억, 그리고 오랜 시간 그녀를 기다려온 악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 ‘엘리스’는 어두운 집 안에 숨겨진 흔적을 좇으며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공포와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인시디어스: 라스트 키>는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와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를 함께 비추며, 시리즈의 핵심 인물인 ‘엘리스’의 오랜 상처를 깊이 파고든다.

제목 인시디어스: 라스트 키

장르 공포

감독 애덤 로비텔

출연 하비에르 보텃, 조쉬 스튜어트, 린 샤예, 스펜서 로크

공개 2018

[‘인시디어스: 라스트 키’](#)

죽은 엄마를 부르려던 한 번의 시도가 ‘더 먼 곳’의 악령을 깨웠다



<인시디어스 3>는 램버트 가족의 사건 이전, ‘엘리스(린 샤예)’가 다시 악령과 맞서기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 프리퀄이다.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던 소녀 ‘퀸(스테파니 스콧)’은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영매 ‘엘리스’를 찾아가지만, 죽은 자를 부르려던 시도는 오히려 정체불명의 악령을 불러들인다. 이후 ‘퀸’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잇따르고, 끔찍한 사고로 몸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점차 악령의 손아귀에 갇혀든다. ‘퀸’에게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감지한 ‘엘리스’는 소녀를 구하고 자신을 옥죄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인 ‘더 먼 곳’으로 향한다. 앞선 두 편의 각본을 쓴 리 워넬이 연출을 맡은 <인시디어스 3>는 시간을 1편 이전으로 돌려 ‘엘리스’가 ‘스펙스(리 워넬)’와 ‘터커(앵거스 샘슨)’를 만나 초자연 현상 조사팀을 꾸리는 과정을 비롯한 시리즈의 시작을 그려낸다.

제목 인시디어스 3

장르 공포

감독 리 워넬

출연 더모트 멀로니, 앵거스 샘슨, 스테파니 스콧

공개 2015

[‘인시디어스 3’](#)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